

한-중미 FTA 분야별 활용방안



Global
Market
Report

목 차

요 약

I. 증미시장 개요.....1

II. 한-증미 FTA 개요.....3

III. 한-증미 FTA 국별 기회요인.....4

IV. 한-증미 FTA 국별 수출 유망품목.....9

- | | |
|----|----------|
| 9 | 1. 코스타리카 |
| 22 | 2. 엘살바도르 |
| 34 | 3. 온두라스 |
| 44 | 4. 니카라과 |
| 55 | 5. 파나마 |

V. 결론 및 시사점.....67

요 약

- **(시장 개요)** 중미는 개별국가 시장규모로는 작지만 5개국을 합치면 중남미 8번째 경제규모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중남미 지역 전체를 웃돌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 경제규모('16년)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중미 순
 - * 경제 성장률('18년 예측치, %) : 코(3.6), 엘(1.8), 온(3.3), 니(4.2), 파(5.4), 중남미 전체(2.1)

- **(한-중미 FTA 개요)** '15년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6.11월 실질협상 타결에 합의. '18.2월 정식서명을 완료하며 연내 발효 예상
 - * 중미는 북미·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지역 교두보로 한-중미 FTA를 통해 양측의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통한 교역 확대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진출 유망품목)** 한-중미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중미 내 중산층 증가 등이 한국산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등 포함), 화장품, 음료, 의약품의 對중미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유망품목	유망국가	선정 사유
자동차부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 기대 ▪ 중산층 증가 및 대중교통 미비로 인한 자동차 판매의 꾸준한 증가가 자동차부품 시장 호조세 견인 ▪ 중고차 중심의 자동차 시장 급성장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 ▪ 한국산 부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화장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층을 중심으로 미용시장 급성장 중 ▪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 여성소비자의 미용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제품 수요 확대 ▪ 한류 확산 및 K-뷰티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
음료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 기대 ▪ 중산층 확대에 따른 식음료(특히 건강음료) 수요 증가 전망
의약품	코스타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의료부문 의약품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매 증가 예상

- **(진출 전략)** 한-중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개별국가가 아닌 중미 통합시장 관점으로 접근 △파나마 등지에 물류거점을 구축하여 납기일 단축 및 소량 오더에 대응 △ 중미 내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수단 다양화 전략 마련

I

중미시장 개요

□ 경제 규모

- 중미 5개국의 GDP는 1,733억 달러로 중남미 8번째 경제 규모로 파나마, 코스타리카 2개국이 중미 전체 GDP의 65%를 차지. 1인당 GDP는 평균 7,024 달러 수준이나 국별 편차가 큰 편
 - * 경제 규모('16년)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중미 순
- 중미 5개 개별국의 인구는 천만명 미만의 소국이나 전체 인구는 2,962만 명으로 중남미 7번째 규모
 - * 인구 규모('16년) :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중미 순

< 중미 5개국 주요 경제 지표('16년 기준)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GDP(백만 달러)	57,810	26,798	21,644	13,230	57,821
1인당 GDP(달러)	11,776	4,227	2,643	2,151	14,323
인구(천 명)	4,909	6,340	8,190	6,150	4,037

* 자료원 : IMF, Global Trade Atlas

□ 교역 동향

- '17년 기준, 중미 5개국의 교역액은 783억 달러이나, 이중 對韓 교역액은 11억 달러로 다소 미미한 수준
- 중미 5개국간 역내 교역액은 97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12.5% 차지
 - * 중남미 주요 공동체 역내 교역 비중 : 남미공동시장(MERCOSUR) 14.3%, 카리브공동체(CARICOM) 12.1%,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7.8%

< 중미 5개국 교역 동향 ('17년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對세계 교역액	25,574	16,212	13,903	12,942	9,726
중미 역내 교역액	2,599	3,069	1,506	2,060	548
對韓 교역액	299	202	141	155	371
對韓 수출액	256	189	122	144	364
對韓 수입액	43	13	19	11	6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주 : 파나마의 경우'17.1-9월까지의 교역액

□ 중미시장 특성과 기회요인

- (지역통합) '17.6월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발효로 중남미 최초의 공동시장이 탄생하는 등 지역통합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 중미공동시장(CACM, '60), 중미통합체제(SICA, '93), 중미공동관세체계(SAC, '93) 등
- (산업구조) 경제·산업적 특성 고려 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양분. 북부는 수출·임가공 관련 제조업이, 남부는 서비스·물류·관광업이 발달

< 중미 권역별 시장특성 비교 >

권역	특징
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국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주력산업) 봉제업(엘), 하네스(온), 플라스틱 제조 등 ○(경제구조) 수출임가공업 발달,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기 타) 낮은 소득수준(1인당 GDP 24천 달러), 저임금 노동력 풍부 
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국가) 코스타리카, 파나마 ○(주력산업) 서비스, 물류, 관광업 등 ○(경제구조) 바이오·IT산업(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파) ○(기 타) 상대적 고소득지역(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 

-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
 - (파나마) 교역 증가(對중국 교역), 인프라 투자 확대, 서비스 수출 증가로 '18년 5.6% 경제성장 전망 (세계은행)
 - (코스타리카) 물가 안정, 수출 확대, 투자 회복, 실업률 감소, 관광 산업 성장에 힘입어 '18년 3.7%의 경제성장 전망 (코스타리카 중앙은행)
 - (니카라과) 내수 활성화, 투자와 개인 소비 증가, 수출 증가(농산물, 식료품 등), 건설 경기 호조로 '18년 4.5-5% 경제성장 전망 (세계은행, CEPAL)
 - (엘살바도르) 외국인직접투자와 고정투자 부진으로 '18년 1.8%의 경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세계은행)
 - (온두라스) 제조업, 농업, 금융, 건설업 부문의 회복 및 교역 증가로 '18년 3.7-4.1% 경제성장 전망 (온두라스 중앙은행)

II

한-중미 FTA 개요

□ 경과

- '15.6월 한-중미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중미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중미 6개국과 협상 개시
- '15.9월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총 7차례 공식협상 개최. '16.11.16 실질 타결
 - *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및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
- '17.3.10일 중미 5개국과 가서명 완료
 - * 과테말라는 자국간 업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 압박 등으로 추후 가입 입장 표명
 - * 협정문은 서문 및 총 24개 챕터(상품, 국경간 서비스 무역, 원산지, TBT, SPS, 분쟁해결 등)로 구성
- '18.2.21일 한-중미 FTA 5개국 통상장관과 정식서명 완료
 - * 국회비준동의 이후 한-중미 상호간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국내절차 통보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 1일 또는 양국이 별도 합의한 날 발효)

□ 주요 내용 및 의의

- (우리측 개방) 품목수 기준 95%, 수입액 기준 98-100% 개방. 커피, 원당, 바나나 등 우리측 민감성이 낮으면서 중미측 관심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
- (중미측 개방) 품목수 기준 95%, 수입액 기준 93-99% 개방.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수출품목도 대폭 개방
- (기대효과) 한-중미 FTA 발효 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9억 달러 개선, 2,534개 일자리 창출 효과 전망 (KIEP)
- (의의) 중미 5개국과 동시에 체결한 최초의 FTA로 중국·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고지 확보, 북미·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지역 FTA 네트워크 완성을 통한 교역 다변화, 양측의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통한 교역 확대·투자 활성화

III

한-중미 FTA 국별 기회요인

□ 코스타리카

○ 대표적 FTA 수혜품목

(수출) 한국 → 코스타리카		(수입) 코스타리카 → 한국	
품목	관세철폐 방식	품목	관세철폐 방식
석유화학제품	즉시철폐(10→0%)	윤활유	즉시철폐(8→0%)
화장품	즉시철폐(15→0%)	타이어	즉시철폐(8→0%)
의료기기·의약품	즉시철폐(1/6→0%)	승용차·화물차	즉시철폐(8/10→0%)
승용차·화물차	즉시철폐(1→0%)	자동차부품	즉시철폐(8→0%)
자동차부품	즉시철폐(1/10→0%)	커피	즉시철폐(2/8→0%)
알로에음료	즉시철폐(15→0%)	팜유·원당	즉시철폐(3→0%)
음향기기·조명기기	5년	의료기기	3년
타이어	10년	바나나·구아바	5년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코스타리카 측 최장기간(15~16년) 관세철폐 품목

- 편직물, 천연꿀, 꽃(장미), 과일야채류(토마토·포도), 사료, 제조담배 등

○ 관세철폐(양허) 제외품목

- (코측) 플라스틱 제품, 알루미늄 제품, 쇠고기, 쌀, 당류, 치즈 등
- (한측) 경유, 쇠고기, 참깨, 고추, 인삼류, 수산물(조기·고등어·명태) 등

○ 참고사항

- 혜택품목 상당수가 이미 영세율이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바, 교역 희망품목의 양허유형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다운로드) www.fta.go.kr→협정문정보→서명/타결국(중미선택)→‘협정문 및 기본문서’ 탭 선택→‘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선택

□ 엘살바도르

○ 대표적 FTA 수혜품목

(수출) 한국 → 엘살바도르		(수입) 엘살바도르 → 한국	
품목	관세철폐 방식	품목	관세철폐 방식
자동차부품	즉시철폐(1→0%)	원두커피	즉시철폐(2→0%)
휴대전화	즉시철폐	원당(일부)	즉시철폐(3→0%)
첨단제품	즉시철폐	콘플레이크류	즉시철폐(5.4→0%)
아연도금판	즉시철폐	의약품	즉시철폐(8→0%)
타이어	3-5년	참치캔	3년
자동차	9-10년	가공커피	3년
화장품	10년	합성제화	5년
가전제품	10년	넥타	7년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내 부속서2-나 양허표

○ 엘살바도르 측 최장기간(15년 이상) 관세철폐 품목

- 돈육소시지, 캔디, 초콜릿, 정제염, 면화재킷, 비합금철사, 강관 등

○ 관세철폐 제외품목

- (엘측) 철강류, 섬유류, 플라스틱류, 가금육, 유가공제품, 곡물 등
- (한측) 쌀, 냉동정어리, 소고기, 일부 과즙음료 등

○ 기타 기회요인

- 한-엘살바도르 간 원사기준(Yarn forwarding) 규정 적용 (중미 유일)
 - * 원사기준은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원사(yarn) 이후의 공정을 모두 당사국에서 거친 경우에만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엘살바도르에 既진출 및 진출 예정인 우리기업 활용 가능성 다대
- 원산지 누적 적용
 - * ① 협정당사국이 원산지인 상품·재료가 최종재 가공에 사용될 시 최종재 가공국이 원산지인 상품으로 간주 ② 당사국의 제3의 FTA 체결국과 원산지 누적 위한 원산지규정 개정 허용

○ 참고사항

- 혜택품목 상당수가 이미 영세율이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바, 교역 희망품목의 양허유형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다운로드) www.fta.go.kr→서명/타결국(중미선택)→‘협정문 및 기본문서’ 탭 선택→‘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선택

□ 온두라스

○ 대표적 FTA 수혜품목

(수출) 한국 → 온두라스		(수입) 온두라스 → 한국	
품목	관세철폐 방식	품목	관세철폐 방식
하네스	즉시철폐(5→0%)	원두커피	즉시철폐(2·8→0%)
타이어(신제품)	즉시철폐(5·10→0%)	팜유	즉시철폐(2·3→0%)
타이어(중고)	즉시철폐(15→0%)	의약품	즉시철폐(8→0%)
승합차	5-10년	원사·원단	즉시철폐(8·13→0%)
승용차·화물차	8-10년	의류	즉시철폐(8·13→0%)
자동차부품	즉시·10년	제화	5년
타이어(재생)	10년	가공커피	12년
음료(주스)	10-15년	원당(일부)	10년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내 부속서2-나 양허표

○ 온두라스 측 최장기간(15년 이상) 관세철폐 품목

- 담배, 바니시, 플라스틱관(일부), 파티클보드, 타일류, 주방용품 등

○ 관세철폐 제외품목

- (온측) 도금강판, 플라스틱류, 가구(목제), 음료베이스, 소시지 등
- (한측) 쌀, 곡물, 육류(소고기·돼지고기), 우유 등

○ 기타 기회요인

-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17.6월 발효)에 근거, 온두라스 양허 품목의 對과테말라(한-중미 FTA 제외국) 우회 수출路로 활용 가능

* 한국제품을 온두라스에 수출하여 관세를 납부한 이후, 관세동맹을 통해 과테말라로 재수출시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해 질 전망

○ 참고사항

- 혜택품목 상당수가 이미 영세율이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바, 교역 희망품목의 양허유형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다운로드) www.fta.go.kr→서명/타결국(중미선택)→'협정문 및 기본문서' 탭 선택→'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선택

□ 니카라과

○ 대표적 FTA 수혜품목

(수출) 한국 → 니카라과		(수입) 니카라과 → 한국	
품목	관세철폐 방식	품목	관세철폐 방식
건설중장비	즉시철폐	의류	즉시철폐(8/13→0%)
의료기기·의약품 (초음파영상진단기)	즉시철폐	중고차	즉시철폐(8/10→0%)
섬유제품	즉시철폐(15→0%)	섬유제품	즉시철폐(8/10→0%)
플라스틱제품	즉시철폐(5/10→0%)	일반기계 및 부품	즉시철폐(5/8→0%)
알로에음료	즉시철폐(15→0%)	커피	즉시철폐(2/8→0%)
타이어	5-10년	전선 및 케이블	3년
자동차부품 (클러치·유류여과기)	5-10년	신발 및 직물	3-5년
승용차·화물차	7-10년	밀가루·옥수수가루	3년
가전제품(세탁기·냉장고·TV·에어컨)	7년	수산물·어류	3-12년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니카라과 측 최장기간(15~16년) 관세철폐 품목

- 쇠고기, 목제가구, 알루미늄 제품, 제조담배, 기타 섬유제품(일부) 등

○ 관세철폐(양허) 제외품목

- (니측) 아연도강판, 화장지, 시멘트, 당류, 현미, 요구르트, 의자 등
- (한측) 경유, 기타석유제품, 쇠고기, 분유, 수산물(멸치·고등어·굴) 등

○ 참고사항

- 혜택품목 상당수가 이미 영세율이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바, 교역 희망품목의 양허유형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다운로드) www.fta.go.kr→협정문정보→서명/타결국(중미선택)→‘협정문 및 기본문서’ 탭 선택→‘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선택

□ 파나마

○ 대표적 FTA 수혜품목

(수출) 한국 → 파나마		(수입) 파나마 → 한국	
품목	관세철폐 방식	품목	관세철폐 방식
자동차 (승용차·화물자동차)	즉시철폐	새우 (냉수성·냉동)	즉시철폐(20→0%) / 3년 철폐
철강제품 (철구조물 등)	즉시철폐(3/15→0%)	커피	즉시철폐(2→0%)
알로에음료	즉시철폐(10→0%)	고철·스크랩	즉시철폐
건설중장비	즉시철폐(5→0%)	섬유제품·합성섬유	즉시철폐(8→0%)
엘리베이터	즉시철폐(3→0%)	윤활유(일부)	즉시철폐(7→0%)
의료용기기 (초음파영상진단기)	3-5년	천연가스·프로판	5년
타이어 (승용차·화물차용)	7-10년	바나나	5년
가전제품 (에어컨·냉장고·세탁기)	3-10년	파인애플·파파야	7년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파나마 측 최장기간(15~16년) 관세철폐 품목

- 도료, 비누, 축전지 및 축전지 부품(일부), 기타 음료 등

○ 관세철폐(양허) 제외품목

- (파측) 알루미늄 제품(케이블·봉), 플라스틱 제품, 연산축전지 등
- (한측) 경유, 쇠고기, 우유·탈지분유, 치즈, 천연꿀, 수산물(갈치·민어) 등

○ 참고사항

- 혜택품목 상당수가 이미 영세율이거나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바, 교역 희망품목의 양허유형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다운로드) www.fta.go.kr→협정문정보→서명/타결국(중미선택)→‘협정문 및 기본문서’ 탭 선택→‘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선택

IV

한-중미 FTA 국별 수출 유망품목

1

코스타리카

가. 자동차부품(배터리, 타이어 포함)(HS 4011, 4012, 8507.10, 8708)

□ 품목 선정 사유

- 파나마와 더불어 중미 내 1인당 GDP 1만 달러 이상의 꾸준한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으로 자동차 수요 견조
- 한국산 등 아시아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상승세 지속
 - 코스타리카 내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 약 60%로 1위 유지

□ 시장현황

- 코스타리카의 경우 중고차가 자동차 판매시장 내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 신차 판매가 중고차 판매를 추월한 상황
 - * 신차 대상 은행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및 중고차 대상 규제 강화 영향
- 한국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높은 품질경쟁력에 따른 인지도 제고로 최근 5년간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완성차 및 부품 수요 급상승
 - * '11년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를 제치고 최초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한국산이 일본산을 능가하는 빈도 증가

□ 수입동향

-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수입은 중국(29.6%), 미국(15%), 일본(12.4%), 멕시코(11.7%), 한국(7.8%) 순으로 한국은 상위권을 차지

< 코스타리카의 자동차부품 수입동향 >

(단위: 백만 달러)

연번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50.1	48.0	59.7	62.0	59.1
2	미국	30.5	35.6	31.7	33.9	30.0
3	일본	24.3	22.5	25.0	26.0	23.2
4	멕시코	22.4	25.6	24.5	22.2	22.5
5	한국	13.0	11.7	16.3	11.3	11.5
	전체	188.7	192.8	208.9	208.8	200.8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HS 4011, 4012, 8507.10, 8708 합산 기준)

- 타이어(HS 4011)의 경우 중국이 55%의 독보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큰 격차를 두고 한국(7%)이 2위를 차지. 중고·재생타이어(HS 4012)는 멕시코(44%)와 미국(31%)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형성
- 배터리(HS 8507.10)는 멕시코(49%), 파나마(12%)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산은 8%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
- 자동차부품(HS 8708)은 미국(24.8%), 일본(23.2%), 중국(15.7%)산의 시장점유율이 64%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한국의 수출동향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수출은 '15년 이후 감소 추세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자동차부품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타이어(HS 4011)	6,396	5,524	6,333	5,161	5,584
중고·재생타이어(HS 4012)	114	139	152	39	60
배터리(HS 8507.10)	825	721	984	1,275	2,431
자동차부품(HS 8708)	5,692	5,360	8,829	4,776	3,423
전체	13,027	11,744	16,298	11,251	11,498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타이어(HS 4011.10)의 경우 한국(17.4%)은 중국(54.2%)에 이어 최근 4년간 수입국 2위를 기록 중
- 배터리(HS 8507.10)의 경우 '17년 기준 한국(8%)은 멕시코(49.2%), 미국 (12.3%)에 이어 수입국 3위를 차지하여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매김.
- 자동차부품(HS 8708)의 경우 중국·대만산의 약진으로 한국산 부품의 수출은 '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상황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 타이어(HS 4011.10/4011.2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코스타리카	한국	4011.10.00	10%	4011.10.00	양허제외	
		4011.20.90		4011.20.90		
		4011.20.10	6%	4011.20.10	10년 철폐	
	경쟁국	[4011.10.00/20.9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0%
		페루	2%	EU, 안도라	2%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4%	싱가포르	6%	
		기타국				9%
		[4011.20.1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0%
페루		1.2%	EU, 안도라	1%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2.4%	싱가포르	3.6%		
기타국					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중고·재생타이어(HS 4012.11/4012.12/4012.2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코스타리카	한국	4012.11.00 4012.12.00 4012.20.00	15%	4012.11.00 4012.12.00 4012.20.00	10년 철폐	
	경쟁국	[4012.11.0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0%
		EU, 안도라	3%	페루, 중국	9%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6%	기타국	14%	
		[4012.12.0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벨리즈, 싱가포르				0%
		중국	6%	EU, 안도라, 페루	9%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10.5%	기타국	14%	
		[4012.20.0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0%
	EU, 안도라, 페루	3%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6%		
기타국			14%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자동차배터리(HS 8507.1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코스타리카	한국	8507.10.00	15%	8507.10.00	즉시 철폐	
	경쟁국	[8507.10.00.10/10.00.91/10.00.99]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멕시코, 파나마, 페루,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중국				0%
		EU, 안도라	9%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10.5%	
기타국			14%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자동차부품(HS 8708)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코스타리카	한국	8708.30.20	0%	8708.21.00 /80.20/92.20	10년철폐
		8708.29.10/80.11	1%	기타 하위품목	즉시철폐
		기타 하위품목	10%		
		[8708.21.00.11/21.00.90/40.20.10/40.20.90/50.10.11/50.10.19/50.10.91/50.10.99/50.20.11/50.20.19/50.20.91/50.20.99/50.90.10/50.90.90/80.20.11/80.20.19/80.20.91/80.20.99/80.90.11/80.90.19/80.90.91/80.90.99/91.20.10/91.20.90/92.20.10/92.20.90/94.20.10/95.00.2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중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0%	
		EU, 안도라	6%	기타국	9%
		[8708.70.00.11/70.00.19/70.00.21/70.00.29/70.00.91/70.00.99]			
	경쟁국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중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0%	
		EU, 안도라	2%	중국	4%
		기타국	9%		
		[8708.29.10.10/29.10.20/40.10.11/80.11.10/80.11.20/80.19.11/95.00.10]			
		모든 국가		0%	
		[기타 하위품목]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중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0%	
		EU, 안도라	2%	기타국	9%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차량용 배터리의 경우 한국산 품질수준이 익히 알려져 있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
 - 타이어의 경우 신차, 중고차, 중고버스 등 다양한 차종에 대해 수요가 지속될 것이나 중국산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산 평판 및 개선방안
 - 현지 한국산 차량 점유율은 약 60%이며 다른 차종에 비해 한국산은 가격경쟁력이 있음.
 - * 경쟁브랜드인 도요타 점유율 약 30%, 미국산 약 10%
 - 한국산 부품 평판과 인지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며, 타 국가 공급처와 비교 시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사항은 특별히 없음.
- 한-중미 FTA로 인한 기대
 - FTA를 통해 우수한 제조업체의 진출이 늘어나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거래 기회가 확대되고, 파트너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양국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미국과 같이 수입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A/S 정책 및 유연한 단가협상 등의 대비책 수립 필요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Representaciones Cuadrado S.A.	(TEL)+506-7075-2260 (Email)merchecuadrado@hotmail.com	○ 한국산 자동차 AS 부품 수입상 ○ 주로 모비스제품을 유통해왔으나 최근 조달의 어려움으로 OEM 제품 비중 늘려가고 있음
Repuestos Gigante	(TEL)+506-2226-9121/9161 (Email)fabrizio@repuestosgigante.com, zapote@repuestosgigante.com (URL)www.repuestosgigante.com	○ 한국산, 일본산 자동차 AS 부품 수입 및 유통 ○ 현대자동차 AS 부품 비중이 가장 높음
Auto Fama Costa Rica	(TEL)+506-2244-6262 (Email)repuestos@autofamacr.com (URL)sites.google.com/autofamacr.com/sitioweb	○ 한국산·일본산 자동차부품 및 중고 AS 부품 수입 및 유통
CETSA	(TEL)+506-8817-9778,2221-4674 (Email)aastorga@cetsacr.com, cherera@cetsacr.com (URL)www.cetsacr.com	○ 버스 부품 수입 및 유통 ○ 대우, 볼보, 벤츠 등 취급
Maxi Repuestos	(TEL)+506-2290-0046 (Email)alfredo.rodriguez@maxirepuestos.co.cr (URL)maxirepuestos.co.cr/en	○ 트럭, 버스 AS 부품 수입 및 유통 ○ 약 1만개 이상의 부품 취급 중

*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나. 의약품(HS 3003, 3004)

□ 품목 선정 사유

- 의약품은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수출품목 중 상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품목
- 공공 의료부문의 의약품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파나마 정부기관 (보건부)주도의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량구매 입찰 기회가 다수 있음.
 -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한 관세 인하 시, 가격경쟁력 확보
 - 관련 품목의 시장진입, 공급확대, 품질검증, 인지도 제고를 통해 FTA 미양허 제품의 수출 확대로도 이어져 전체적인 파급효과를 일구어낼 것으로 예상

□ 시장현황

- 의약품 시장 규모
 - 코스타리카 의약품 수입시장은 중미 내 최대 규모로 소득증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수입 수요가 꾸준히 지속
 - 정부 차원의 공공 의약품 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 성장할 전망

□ 수입동향

- 코스타리카 의약품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2% 성장률을 보이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통적으로 미국, 독일 등 유럽에 편중된 시장이나 최근 중국, 인도 의약품의 수입비중이 급격히 증가

< 코스타리카 의약품 수입동향 >

(단위: 천 달러)

연번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파나마	27,098	43,892	67,324	73,189	76,541
2	멕시코	57,436	61,483	59,899	57,239	72,012
3	독일	38,890	40,753	42,713	35,650	39,543
4	스페인	15,458	22,042	19,857	20,280	32,914
5	미국	32,046	29,782	34,574	32,167	31,475
41	한국	431	541	645	346	389
	전체	448,626	479,541	520,865	521,823	550,021

* 자료원 : GTA (HS Code 3003, 3004 합산 기준)

□ 한국의 수출동향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의약품 수출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음. 미국, 유럽 제품이 주도하고 있는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의 인지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상황임.

< 한국의 對코스타리카 의약품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의약품	431	541	645	346	389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S 3003, 3004 합산 기준)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코스타리카	한국	3003.10.10./20.10/ 31.00/39.10/40.11/ 40.12/40.13/40.19/ 90.11/90.21/90.91/ 3004.10.10./20.10/ 31.00/32.10/39.10/ 40.11/40.12/40.13/ 40.19/50.10/90.11/ 90.21/90.91	1%	3003.10.20./20 .20/39.20/40.2 1/40.22/40.23/ 40.29/90.12/90 .22/90.92	5년 철폐
		기타 품목	6%	기타 품목	즉시 철폐
	경쟁국	[3003.10.20.10/10.20.90/3003.90.92.0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0%	
		EU, 안도라	1%	페루	1.2%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2.4%	기타국	5%
		[3004.10.20.1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0%	
		EU, 안도라	1%	페루	3.6%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2.4%	기타국	5%
		[3003.20.20.10/20.20.90/39.20.00/40.21.00/40.23.00/40.29.10/40.29.90/90.12.00/90.22.00/90.91.0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0%	
		페루	1.2%	중국	2.4%
		EU, 안도라	3%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4.2%
		기타국			5%

[3003.40.22.00/3004.40.21.00/40.22.00/40.23.00/40.29.10/40.29.9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0%
중국	2.4%	EU, 안도라	3%
페루	3.6%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4.2%
기타국			5%
[3004.10.20.91/10.20.99/10.20.99/20.20.10/20.20.90/32.20.00/39.20.00/50.20.00/90.12.10/90.12.90/90.12.10/90.22.90/90.92.10/90.92.90]			
미국,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캐나다, 칠레,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과야나, 벨리즈, 싱가포르			0%
EU, 안도라	1%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2.4%
페루	3.6%	기타국	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의약품 수요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정부의 공공 보건용 의약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국가 차원의 의약품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수요가 많음.
- 공공 보건용 의약품 조달 개선을 위해 조달 및 구매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며, 그 동안 부족했던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산 평판 및 개선방안

- 중국산과 달리 한국산 의약품은 품질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일반적임. 그러나 제품 자체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한국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미흡한 사후대응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

○ 한-중미 FTA로 인한 기대

- 의약품은 관세가 비교적 낮은 품목이 대다수인 관계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은 없으나, 한-중미 FTA를 통해 한국산 제품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우리기업 담당자 인터뷰 (제품 : 당화혈색소 측정 장비 및 시약)

○ 진출 성공 요인

- 전통적으로 수입되는 미국, 유럽(독일 등)산 대비 견줄 수 있는 품질 및 가격경쟁력

○ 진출 애로사항

-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제품의 우수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홍보 활동 필요

- 한국산 제품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이 다소 부족한 상황. 현지 공공·민간 수요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산에 대한 품질경쟁력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기존 공공 의료 보건시장 내 의약품 정부조달 낙찰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 및 파트너십 구축 등 선제적인 전략 수립 필요

- 의약품 등록 관련 현지 보건부에서 우대하는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Country list for high standard of manufacture and control 리스트는 코스타리카 복지부에서 의료 제품 등록 시 우대하는 국가리스트로 동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등록 절차가 간소화됨.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Praxis Pharmaceutical S.A	(TEL)+506-8859-2272 (Email)avargas@praxispharma.com	○공공 분야 대상 의약품 납품
Bioplus Care, S.A.	(TEL)+506-2502-0101 (Email)info@biopluscare.com (URL)www.biopluscare.com	○공공 분야 대상 항생제, 진통제, 마취제, 신경 관련 의약품 납품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산 제품 취급 중
Pharma Quimique de Panama	(TEL)+507-223-7199 (Email)info@phachisa.com (URL)www.phachisa.com	○한국의 중외제약, 동국제약 등 제품 취급 중인 바이어
Josmar y Asociados	(TEL)+507-233-4929 (Email)info@josmarsa.net (URL)www.josmarsa.net	○진단장비 및 진단시약 등 취급, 한국 녹십자 MSC 제품 취급
Mirero Corp.	(TEL)+507-266-8085 (Email)N/A (URL)www.mirerocorp.com	○한국의 SD Diagnostics (진단관련 제품) 취급

*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가. 자동차부품(HS 4011, 4012, 8507.10, 8708)

□ 품목 선정 사유

- 중고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자동차부품 수요 동반 성장
-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늘면서 타이어,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써드파티 자동차부품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

□ 시장현황

-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4-7% 성장세를 유지하는 한편, 오토바이의 등록대수가 최근 4년간 20% 가량 증가

< '14-'17년 엘살바도르 자동차 등록대수(오토바이 포함)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오토바이	137,680	166,823	210,030	250,862
자동차	714,514	747,469	798,048	843,661
계	852,194	914,292	1,008,078	1,094,522

* 자료원 : 엘살바도르 교통부(Viceministro de Transporte)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 시장규모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등 포함)은 전량 수입에 의존

□ 수입동향

-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수입은 중국, 미국, 멕시코, 일본, 대만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

< 엘살바도르의 자동차부품 수입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연번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20.6	22.5	27.6	29.1	31.1
2	미국	26.2	26.0	27.5	28.5	28.7
3	멕시코	16.1	16.0	17.1	18.4	20.0
4	일본	14.9	14.3	14.6	14.5	14.0
5	대만	9.6	10.0	10.3	10.9	11.3
6	한국	10.8	9.5	8.5	8.3	7.4
	전체	127.8	122.8	134.2	136.4	141.2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S 4011, 4012, 8507.10, 8708 합산 기준)

- 타이어(HS 4011)의 경우, 중국(43.4%), 코스타리카(13.5%)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중고·재생타이어(HS 4012)는 한국(23.0%), 미국(21.4%)산이 압도적
- * 종량기준 신규 타이어가 14,069톤, 중고·재생타이어가 12,438톤으로 비슷한 양이 수입되나, 상용제품만 놓고 보면 중고·재생타이어 비중이 매우 높은 편. 이는 중미 전역으로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업자들의 재생타이어 제품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
- 배터리(HS 8507.10)는 멕시코(69.1%), 미국(11.3%)이 시장을 독식
- * 멕시코산 제품은 Rayo, Megaforce, Optima, Superior, LTH, Ac Delco등이며, 미국산은 American, Enermax 등이 잘 알려져 있음.
- 자동차부품(HS 8708)은 미국, 중국, 대만 등 3개국이 시장의 62.8%를 차지

□ 한국의 수출동향

- 최근 5년간 한국의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수출은 꾸준히 감소
 - 배터리(HS 8507.10) 수출은 '16년 156만 달러에서 '17년 41만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타이어(HS 4011) 수출 또한 감소 추세에 있음.
 - * '17년 한국산 신제품 타이어 수입량은 519톤, 중고·재생타이어는 2,460톤으로 큰 격차 확인
 - 반면, 자동차부품(HS 8708)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엘살바도르 자동차부품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타이어(HS 4011)	4,291.6	4,169.7	3,138.7	2,486.8	2,008.7
중고·재생타이어(HS 4012)	4,179.6	2,962.3	2,310.1	1,982.8	2,395.6
배터리(HS 8507.10)	640.1	386.5	831.2	1,563.6	408.8
자동차부품(HS 8708)	1,648.8	1,961.7	2,180.3	2,302.5	2,633.4
전체	10,760.1	9,480.2	8,460.3	8,335.8	7,446.4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 타이어(HS 4011.10/4011.2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엘살바도르	한국	4011.10.00	10%	4011.10.00	3년 철폐
		4011.20.90		4011.20.10	
		4011.20.10		10년 철폐	
	경쟁국	[4011.10.00/20.90]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대만, 콜롬비아, EU		0%	
		기타국		10%	
		[4011.20.10]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대만, 콜롬비아, EU		0%	
		기타국		5%	

* 자료원 : Direccion General de Aduanas El Salvador,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종합

○ 중고·재생타이어(HS 4012.11/4012.12/4012.2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엘살바도르	한국	4012.11.00	15%	4012.20.00	즉시 철폐
		4012.12.00		4012.12.00	5년 철폐
		4012.20.00		4012.11.00	10년 철폐
	경쟁국	[4012.11.00]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대만, EU			0%
		기타국			15%
		[4012.12.00]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대만			0%
		EU	6%	기타국	15%
	경쟁국	[4012.20.00]			
멕시코, 도미니카공, 파나마, 미국, 대만, EU			0%		
기타국			15%		

* 자료원 : Direccion General de Aduanas El Salvador,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종합

○ 자동차배터리(HS 8507.1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엘살바도르	한국	8507.10.00(유일)	15%	8507.10.00	즉시 철폐
	경쟁국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콜롬비아, 쿠바			0%
EU		6%	기타국	15%	

* 자료원 : Direccion General de Aduanas El Salvador,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종합

○ 자동차부품(HS 8708)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엘살바도르	한국			8708.10.00/29.90/30.10/30.20/30.90/40.10/70.00/80.19/80.20/80.90/91.10/91.20/93.00/94.10/94.20/99.00	즉시 철폐
		8708.30.20	0%	8708.21.00/29.10/40.20/50.10/50.20/50.90/80.11/92.10/92.20/95.00	
		기타	1%		

	경쟁국	[8708.21.00/8708.40.20/8708.50.10/8708.50.20/8708.50.90/8708.80.20/8708.80.90/8708.92.10/8708.92.20/8708.94.20/8708.95.00]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콜롬비아	0%
		기타국	1%
		[기타 하위품목]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콜롬비아, EU	0%
		기타국	1%

* 자료원 : Direccion General de Aduanas El Salvador,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종합

□ 관련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한-중미 FTA 발효 시, 필터류, 윤활유, 재생타이어 등 수입을 확대 하겠다는 업체가 다수
- 한국산 평판 및 개선방안
 - 자동차 부품류는 시장 특성상 유사품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는데, 한국산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바이어들의 공통된 반응
- 한-중미 FTA로 인한 기대
 - 배터리 및 타이어는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높은 관세가 부과 되고 있는 바,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자동차부품(HS 8708)은 현재 관세가 0-1%로 낮아 FTA 발효에 따른 수입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미국, 멕시코 제품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어, 한-중미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품질 및 마케팅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더불어 주변 수입국(미국, 멕시코 등) 대비 긴 납기일을 최대한 단축 할 수 있도록 미주지역 물류센터를 확충하거나, 소량 오더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장 접근 전략도 필요함.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UNILLANTAS	(TEL)+503-2522-5500 (Email)compras@unillantas.com.sv (URL)www.unillantas.com.sv	○타이어 전문 유통업체 ○DUNLOP, FALKEN, SUMITOMO 브랜드 취급
IMPORTADORA RAMIREZ	(TEL)+503-2440-8888 (Email)tejadac05importadoraramirez@gmail.com (URL)www.importadoraramirez.com	○타이어 전문 유통업체 ○한국·동아타이어 및 대호산업 (재생타이어) 제품 취급
LA CASA DE LAS BATERIAS	(TEL)+503-2278-7512 (Email)asistenteadmin.sal@casabat.com (URL)casabat.com/elsalvador	○배터리 전문 유통업체(중미 6개국 사업장 보유) ○AUTOCRAFT, BOSCH, DEKA, MAC, OPTIMA 브랜드 취급
BATERIAS IMPORTADAS	(TEL)+503-2268-9477 (Email)franklin.lopez@bateriasimpo rtadas.com (URL)www.bateriasimportadas.com	○배터리 전문 유통업체 ○OPTIMA, NATIONWIDE, EXPLORER 등 멕시코산 취급
LA CASA DEL REPUESTO	(TEL)+503-2205-1500 (Email)sonsonate@lcrelsalvador.com (URL)www.lcrelsalvador.com	○자동차부품 전문 유통업체 ○대만, 미국, 한국산 범용제품 취급
PROYESA	(TEL)+503-2559-9999 (Email)pmfrenos@proyesa.com.sv (URL)proyesa.com.sv	○자동차부품(제동계통, 베어링 등) 전문 유통업체 ○BOSCH, HELLA, TIMKEN 등 취급
IMPRESSA	(TEL)+503-2212-0800 (Email)import@impressarepuestos.com (URL)www.impressarepuestos.com	○부품·배터리·타이어 종합 유통업체 ○중미 3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에 사업장 운영 ○ENERMAX, 한국타이어 등 취급
DIPARVEL	(TEL)+503-2245-4444 (Email)ricardo.vasquez@diparvel.com.sv (URL)diparvel.com	○부품·배터리·타이어 종합 유통업체 ○RECORD배터리, 브리지스톤· 파이어스톤·쿠퍼타이어 등 취급 ○GALGO, PRE-Q 등(재생타이어) 판매
EXCEL REPUESTOS	(TEL)+503-2275-1133 (Email)jahemandez@excelautomotriz.com (URL)excelautomotriz.com/el-s alvador/repuestos-excel	○중미 전역에 딜러십을 보유한 자동차 유통업체 ○INTERSTATE/GOODYEAR, AC-DELCO, MOBIS브랜드 취급

*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나. 화장품(HS 3303, 3304, 3307.90)

□ 품목 선정 사유

- K-뷰티에 대한 여성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시장현황

- 엘살바도르는 인구 634만 명의 작은 국가이나 현지 생산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 중
 - 엘살바도르화장품협회(Camar Cosmetica Salvadorena)에 따르면 Unilever가 현지에 공장을 두고 비누 등 세정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로컬브랜드인 Kosmoflex, Laboratorios Suizos 등이 샴푸 등 헤어제품 생산 및 유통
 - 현지 생산은 대부분 세정용품, 샴푸 등에 국한되며 기타 화장품 제조업체는 전무
- 토너, 에멀전과 같은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대부분의 대형 유통망은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기 보다는 현지 수입상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일부 뷰티제품 전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을 갖추고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를 하기도 함.
 - 온라인 판매 위주의 소규모 유통업자도 다수 존재하는데, 한국산 화장품은 전통적인 유통채널 보다 개인이 소량을 가져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지배적임.

< 엘살바도르 내 인기상품 >

제품 사진	제품명/브랜드	인기비결
	Patent polish lip pencil /MAC	높은 인지도 및 검증된 품질에 따라 다소 비싸더라도 유명브랜드 선호 판매처: SIMAN
	Super defense /CLINIQUE	높은 인지도 및 검증된 품질에 따라 다소 비싸더라도 유명브랜드 선호 판매처: SIMAN
	Hydrationist /ESTEE LAUDER	높은 인지도 및 검증된 품질에 따라 다소 비싸더라도 유명브랜드 선호 판매처: SEARS
	Color riche dual effect eye shadow treasure bronze /LOREAL	높은 인지도 및 검증된 품질에 따라 다소 비싸더라도 유명브랜드 선호 판매처: SEARS

< 엘살바도르 내 우리기업 인기상품 >

제품 사진	제품명/브랜드	인기 요인
	Egg pore silky smooth balm/TONY MOLY	시장진입 및 반응 검증 단계 판매처: ELIZZASTORE
	No problem poreblem primer/TOUCH IN SOL	시장진입 및 반응 검증 단계 판매처: ELIZZASTORE
	I'M Real/TONY MOLY	시장진입 및 반응 검증 단계 판매처: ELIZZASTORE
	All around safe block/MISSHA	시장진입 및 반응 검증 단계 판매처: SOKO BEAUTY HOUSE

□ 수입동향

- '14년 이후 화장품 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음.
 - 멕시코, 미국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역내 국가(코스타리카, 과테말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
 - * 코스타리카 Laita社(크림, 세정용품 등), 과테말라 Flushing社(색조화장품, 향수)가 제품을 생산하여 역내 시장에 공급 중
 - 품목별로는 향수·화장수(HS 3303, '17년 44백만불)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초·색조화장품(HS 3304, 43.7백만 달러), 헤어제품(HS 3305, 40.8백만 달러) 순

< 엘살바도르의 화장품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멕시코	12,889.2	23,985.1	23,059.6	24,790.3	24,161.9
2	콜롬비아	19,966.4	16,437.6	16,631.4	22,674.0	18,720.4
3	과테말라	8,008.2	8,729.1	9,110.6	10,042.6	13,826.7
4	미국	12,531.1	11,428.2	14,147.6	13,087.6	12,103.8
5	프랑스	6,060.2	6,223.3	5,020.1	4,504.9	4,281.8
25	한국	17.3	114.5	92.5	52.6	52.5
	전체	79,994.3	79,758.3	82,098.3	89,948.6	88,059.7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S Code 3303, 3304, 3307.90 합산 기준)

□ 한국의 수출동향

- 한국산 화장품의 수출은 '1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
 - 품목별로는 기타화장품(HS 3307, '17년 34천 달러), 두발용제품류(HS 3305, 29천 달러), 기초화장품(HS 3304, 19천 달러)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 한국의 對엘살바도르 화장품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향수·화장수(HS 3303)	0	49,259	151	0	0
메이크업·기초화장품(HS 3304)	372	40,143	47,660	1,443	18,851
기타화장품(HS 3307.90)	16,889	25,094	44,678	51,193	33,653
전체	17,261	114,496	92,489	52,636	52,504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엘살바도르	한국	3303.00.00 3304.10.00 3304.20.00 3304.30.00 3304.91.00 3304.99.00 3307.90.90 3307.90.10	15% 5%	3303.00.00 3304.10.00 3304.20.00 3304.30.00 3304.91.00 3304.99.00 3307.90.10 3307.90.90	10년 철폐																																				
	경쟁국	<p>[3303.00.00]</p> <table border="1"> <tr> <td>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EU</td> <td colspan="2">0%</td> </tr> <tr> <td>대만</td> <td>4%</td> <td>콜롬비아 10.5% 기타국 15%</td> </tr> </table> <p>[3304.10.00/20.00/30.00]</p> <table border="1"> <tr> <td>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콜롬비아, EU</td> <td colspan="2">0%</td> </tr> <tr> <td>쿠바</td> <td>3%</td> <td>대만 4% 기타국 15%</td> </tr> </table> <p>[3304.91.00]</p> <table border="1"> <tr> <td>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콜롬비아, 쿠바, EU</td> <td colspan="2">0%</td> </tr> <tr> <td>대만</td> <td>4%</td> <td>기타국 15%</td> </tr> </table> <p>[3304.99.00]</p> <table border="1"> <tr> <td>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td> <td colspan="2">0%</td> </tr> <tr> <td>대만</td> <td>4%</td> <td>콜 10.5% EU 8% 기타국 15%</td> </tr> </table> <p>[3307.90.10]</p> <table border="1"> <tr> <td>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대만</td> <td colspan="2">0%</td> </tr> <tr> <td>콜롬비아, EU</td> <td>2%</td> <td>기타국 5%</td> </tr> </table> <p>[3307.90.90]</p> <table border="1"> <tr> <td>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td> <td colspan="2">0%</td> </tr> <tr> <td>콜, EU</td> <td>6%</td> <td>대만 10% 기타국 15%</td> </tr> </table>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EU	0%		대만	4%	콜롬비아 10.5% 기타국 1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콜롬비아, EU	0%		쿠바	3%	대만 4% 기타국 1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콜롬비아, 쿠바, EU	0%		대만	4%	기타국 1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0%		대만	4%	콜 10.5% EU 8% 기타국 1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대만	0%		콜롬비아, EU	2%	기타국 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0%		콜, EU	6%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EU	0%																																								
대만	4%	콜롬비아 10.5% 기타국 1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콜롬비아, EU	0%																																								
쿠바	3%	대만 4% 기타국 1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콜롬비아, 쿠바, EU	0%																																								
대만	4%	기타국 1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0%																																								
대만	4%	콜 10.5% EU 8% 기타국 1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대만	0%																																								
콜롬비아, EU	2%	기타국 5%																																							
멕시코, 도미니카공, 칠레, 파나마, 미국	0%																																								
콜, EU	6%	대만 10% 기타국 15%																																							

* 자료원 : Direccion General de Aduanas El Salvador,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종합

□ 관련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유통업체들은 유럽, 미국산 등 유명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절대적이나, 중저가브랜드 취급 유통업체·수입상들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산 취급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 한국산 평판 및 개선방안

- 한국산 브랜드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나 일부 소비층을 중심으로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음.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점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임.
- 더불어 한국산 제품은 스킨케어 및 기초화장품류의 시장 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대부분 화장품의 경우 관세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10년 철폐)되어 한-중미 FTA에 따른 즉각적인 가격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확산이 더 중요
- 업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FTA 발효 시기를 잘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 하되,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스킨케어 노하우, 사용 후기 정보 등을 생산 및 배포하는 마케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SIMAN	(TEL)+503-2250-2563 (Email)doris_canjura@siman.com (URL)www.siman.com/elsalvador	○ 엘살바도르 자본의 백화점 유통망(4개국 진출) ○ MAC, SALLY HANSEN, ESSIE, NYX 등 취급
SEARS	(TEL)+503-2511-3800 (Email)rhmartinez@sears.com.mx (URL)www.sears.com.sv	○ 미국계 백화점유통망(현지 벤더 통해 조달) ○ LOREAL, LANCOME, ELIZABETH ARDEN 등 유명 브랜드 취급
ELIZZA STORE	(TEL)+503-2130-5381 (Email)info@elizzastore.com.sv (URL)www.elizzastore.com.sv	○ 온라인몰 운영 화장품전문 유통업체 ○ JORDANA 등 중저가브랜드 취급 ○ TONYMOLY, MISSHA 등 한국 화장품 전용메뉴 운영
DISPROBE	(TEL)+503-2121-8000 (Email)compras@grupoprobe.com (URL)www.disprobe.com	○ 뷰티제품 수입·유통전문업체 ○ ORLY, OLIVIA GARDEN 등 유럽, 미국브랜드 취급
BEAUTY2GO	(TEL)+503-2263-2263 (Email)sra220354@gmail.com (URL)www.beauty2go.com.sv	○ 뷰티제품 수입·유통전문업체 ○ URBAN STUDIO, LA GIRL, LA COLOR, LECHAT 등 취급
SOKO BEAUTY HOUSE	(TEL)+503-7735-5944 (Email)georgina.milian@gmail.com (URL)sokobeautyhouse.com	○ 최근 오픈한 한국산 화장품 전문 온라인몰 ○ 현재 다양한 한국산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으며 정식 유통에 앞서 시장반응 테스트 중

*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가. 자동차부품(배터리, 타이어 포함)(HS 4011, 4012, 8507.10, 8708)

□ 품목 선정 사유

- 차량(신차, 중고차) 등록대수의 폭발적 성장으로 자동차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부품 수요 동반 성장
-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늘면서 타이어, 배터리를 비롯한 각종 써드파티 자동차부품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는 상황

□ 시장현황

-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3~5%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렴한 교통 수단으로 오토바이가 각광 받으면서 근래 4년간 급성장

< '14-'17년 온두라스 자동차 등록대수(오토바이 포함) >



* 자료원 : 온두라스 재산부(Instituto de la Propiedad)

-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임가공 목적의 하네스(자동차 배선 시스템) 공장이 다수 존재
 - 현지에서 생산된 하네스는 미국(95.9%), 아르헨티나(1.7%), 멕시코로 수출 중이며, 온두라스 수출 상위 2위 품목('17년 기준 464백만 달러)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

□ 수입동향

-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포함) 수입은 중국, 미국, 멕시코, 일본, 대만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
 - 대만은 타이어, 배터리보다는 애프터마켓용 범용제품에 집중

< 온두라스의 자동차부품 수입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27.7	34.5	40.8	47.5	50.8
2	미국	21.1	20.0	22.8	21.2	21.6
3	멕시코	17.7	16.5	16.9	19.1	21.5
4	일본	15.8	15.8	16.2	16.4	18.9
5	대만	6.9	7.1	7.9	8.3	9.0
6	한국	9.2	7.3	7.7	7.4	6.9
	전체	124.6	127.1	139.9	150.9	158.2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S 4011, 4012, 8507.10, 8708 합산 기준)

- 타이어(HS 4011)의 경우, 중국(52.0%), 코스타리카(8.2%)산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중고·재생타이어(HS 4012)는 한국(29.8%), 미국(28.6%)이 압도적
 - * 종량기준 신규 타이어가 20,644톤, 중고·재생타이어가 10,520톤으로 비슷한 양이 수입되나, 상용제품만 놓고 보면 중고·재생타이어 비중이 매우 높은 편. 이는 중미 전역으로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운송업자들의 재생타이어 제품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
- 배터리(HS 8507.10)는 멕시코(71.8%), 미국(10.5%) 제품이 시장을 독식 중으로, 해당 국가와의 FTA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

□ 한국의 수출동향

- 최근 5년간 한국산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수입규모는 꾸준히 감소
 - 특히 타이어(HS 4011)가 '16년 183만 달러에서 '17년 11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8%가 줄면서 전체 감소를 견인
 - 반면 자동차부품(HS 8708), 중고·재생타이어(HS 4012)는 매년 판매량이 늘고 있음. 특히 한국은 온두라스의 중고·재생타이어 수입 1위국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면서 타 품목의 감소세를 상쇄
- * 한국산 타이어는 종량 기준으로 610.9톤을 수출했으며, 중고·재생타이어는 3,479.1톤 수출

< 한국의 對온두라스 자동차부품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타이어(HS 4011)	3,850.1	2,498.3	2,603.6	1,829.1	1,192.6
중고·재생타이어(HS 4012)	2,800.5	2,523.9	2,151.9	2,476.6	2,542.8
배터리(HS 8507.10)	684.3	646.4	987.2	902.0	858.6
자동차부품(HS 8708)	1,887.4	1,679.4	1,981.2	2,149.6	2,279.1
전체	9,222.4	7,347.9	7,723.9	7,357.3	6,873.1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 타이어(HS 4011.10/4011.2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온두라스	한국	4011.10.00	10%	4011.10.00	즉시철폐	
		4011.20.90		4011.20.10		
		4011.20.10	5%	4011.20.90		
	경쟁국 ^{주)}	[4011.11.00/20.90]				
		미국, 칠레, 대만, 콜롬비아, 도미니카공, 파나마			0%	
		EU	6%	기타국	10%	
		[4011.20.10]				
		미국,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도미니카공, 파나마			0%	
		EU	2%	기타국	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온두라스양허표 종합,

* 주 : 온두라스의 경우 타국가 관세율 미공개로 ITC MAP을 통해 확인('15년 기준으로 최근 FTA 발효국 미반영)

○ 중고·재생타이어(HS 4012.11/4012.12/4012.2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온두라스	한국	4012.11.00 4012.12.00 4012.20.00	15%	4012.20.00	3년 철폐	4012.12.00	7년 철폐	4012.11.00	10년 철폐
	경쟁국 ^{주)}	[4012.11.00] 미국, 칠레 대만, 도미니카공		0%				파나마 4.5% EU 6% 캐나다 12% 기타 15%	
		[4012.12.00] 미국, 대만, 도미니카공		0%	칠레	3%		파나마 4.5% EU 10.5% 캐나다 12% 기타 15%	
		[4012.20.00] 미국, 칠레, 대만, 도미니카공, 파나마		0%				EU 6% 캐나다 12% 기타국 1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온두라스양허표 종합

* 주 : 온두라스의 경우 타국가 관세율 미공개로 ITC MAP을 통해 확인('15년 기준으로 최근 FTA 발효국 미반영)

○ 자동차배터리(HS 8507.1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온두라스	한국	8507.10.00(유일)	15%	8507.10.00	10년 철폐			
	경쟁국	[8507.10.00] 미국, 도미니카공, 파나마		0%	칠레	3%		콜 6% EU 10.5% 캐나다 12% 기타 1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온두라스양허표 종합

* 주 : 온두라스의 경우 타국가 관세율 미공개로 ITC MAP을 통해 확인('15년 기준으로 최근 FTA 발효국 미반영)

○ 자동차부품(HS 8708)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온두라스	한국	8708.30.20	0%	8708.10.00/29.90/30.10/30.20/30.90/40.10/40.20/50.90/70.00/80.11/80.19/80.20/80.90/91.10/91.20/93.00/94.10/94.20/99.00	즉시 철폐
		기타	5%		
	경쟁국 ^{주)}	ITC MAP(www.macmap.org/QuickSearch/FindTariff/FindTariff.aspx) * 하위 품목코드가 많은 관계로 직접 검색 권장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온두라스양허표 종합

* 주 : 온두라스의 경우 타국가 관세율 미공개로 ITC MAP을 통해 확인('15년 기준으로 최근 FTA 발효국 미반영)

□ 관련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일부 업체는 한-중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산 수입확대에 관심이 있으나, 온두라스 시장이 작아 수출자가 원하는 최소주문 수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반응임

○ 한-중미 FTA로 인한 기대

- 한-중미 FTA를 계기로 다품목 소량 거래가 많아지길 기대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중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국적 유통망 업체 활용 방안

- * IMPRESSA社의 경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3개국에 유통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본사가 구매 결정을 총괄함. 엘살바도르 본사와 거래 성사 시 여타 중미시장 진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FERCO	(TEL)+504-2228-0057 (Email)gferrera@yahoo.com (URL)www.llanticroferco.com	○타이어 전문 유통업체 ○TOYO, SAILUN타이어 취급
RENDILLANTAS	(TEL)+504-2234-0369 (Email)compras@rendillantas.com (URL)rendillantas.com	○타이어 전문 유통업체 ○BRIDGESTONE, FIRESTONE, CONTINENTAL, PIRELLI, GENERAL TIRE 및 BANDAG 취급
REASA	(TEL)+504-2221-4004 (Email)ccamacho@reasa.hn (URL)reasa.hn	○배터리 전문 유통업체 ○보쉬, 발보린 브랜드 취급 ○한국산 보쉬 배터리 수입 및 유통
GIACOMAN	(TEL)+504-2557-5378 (Email)gap_ventas@hotmail.com (URL)giacomanautoaparts.com	○자동차부품 전문 유통업체 ○일본, 미국,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유통
LA META	(TEL)+504-2283-6750 (Email)abilan.perdomo@lametahn.com (URL)lametahn.com	○자동차부품 전문 유통업체 ○미국, 독일, 프랑스산 브랜드 부품류(브레이크, 서스펜션 등) 취급
ASIATIKOS PARTS	(TEL)+504-2561-4815 (Email)sps@replan.com/ventas@asiatikos.com (URL)asiatikos.com	○자동차부품 전문 유통업체 ○AC DELCO, LTH배터리 및 다수의 한국산 브랜드 취급
IMPRESSA	(TEL)+504-2238-4880 (Email)import@impressarepuestos.com (URL)www.impressarepuestos.com/honduras	○부품·배터리·타이어 유통업체 ○한국타이어, 만도, DENSO 등 주요브랜드 취급 ○엘살바도르 본사에서 구매 결정
UNO (GRUPO TERRA)	(TEL)+504-2236-7722 (Email)jznina.lopez@uno-terra.com (URL)www.uno-terra.com/unidades/llantas-y-lubricantes	○부품·배터리·타이어 종합 유통업체 ○온두라스계 유통기업으로 중미 6개국에 주유소 운영 ○한국타이어, 미세린, FULLRUN 타이어 및 각종 윤활유 취급

*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나. 화장품(HS 3307.90)

□ 품목 선정 사유

- 미용 관심 증가 및 이에 따른 뷰티제품 수요 확대

□ 시장현황

- 주로 토너, 에멀전과 같은 기초화장품 및 색조화장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고가제품과 더불어 수많은 중저가제품이 존재
 - 대부분의 대형 유통망은 화장품을 직접 수입하기 보다는 현지 수입상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일부 뷰티제품 전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을 갖추고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를 하기도 함.
 - 온라인 판매 위주의 소규모 유통업자도 다수 존재하는데, 한국산 화장품은 전통적인 유통채널 보다 개인이 소량을 가져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지배적임.
- 세정용품, 샴푸류의 경우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INDUSTRIAS CHAMER S.A.)도 있으나, 이외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

□ 수입동향

- 온두라스의 화장품 수입은 '14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
 - 품목별로는 헤어제품(HS 3305, '17년 36백만 달러), 기초·색조화장품(HS 3304, 26백만 달러) 순

< 온두라스의 화장품 수입시장 규모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화장품	125.7	122.2	153.7	164.2	171.2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18.4월 기준) (HS 33 기준)

- 멕시코, 미국 등 주변국 수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인근 국가인 과테말라로부터의 수입이 최근 크게 증가

< 온두라스의 화장품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멕시코	17,660.6	15,986.1	19,574.7	19,180.4	19,357.2
2	미국	5,604.7	5,560.2	6,570.8	6,909.5	6,070.0
3	과테말라	4,325.8	4,443.5	4,944.0	5,706.0	5,917.8
4	프랑스	2,741.6	3,087.2	3,155.3	3,687.1	3,534.1
5	중국	1,213.7	2,106.9	2,119.8	2,743.3	3,393.1
19	한국	12.9	13.3	47.4	33.7	149.6
	전체	38,278.0	37,575.5	43,168.8	46,075.6	46,866.1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S Code 3303, 3304, 3307.90 합산 기준)

□ 한국의 수출동향

- 한국의 對온두라스 수출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5년간 10배 가까이 성장하여 '17년에는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함.
 - 한국산 화장품은 주로 기초화장품(선크림 및 기타 스킨케어 제품류)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화장품을 정식 수입 및 유통하는 대형 유통망은 없으며, 온라인 유통 또는 일부 매장들이 소규모로 수입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

< 한국의 對온두라스 화장품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향수·화장수(HS 3303)	0	0	0	0	0
메이크업·기초화장품(HS 3304)	10,656	9,875	45,833	16,661	111,920
기타화장품(HS 3307.90)	810	3,460	1,570	16,990	37,600
전체	12,858	13,336	47,400	33,655	149,564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온두라스	한국	3303 하위품목 3304 하위품목 3307 기타품목	15%	3307.41.00 3303하위품목 3304하위품목	5년 철폐 10년 철폐 15년 철폐																																																																																	
	경쟁국 ^{주)}	<p>[3303.00.00]</p> <table border="1"> <tr> <td>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td> <td colspan="2">0%</td> </tr> <tr> <td>대만</td> <td>7%</td> <td>캐나다</td> <td>13%</td> <td>기타국</td> <td>15%</td> </tr> </table> <p>[3304.10.00/20.00/91.00]</p> <table border="1"> <tr> <td>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td> <td colspan="2">0%</td> </tr> <tr> <td>EU</td> <td>6%</td> <td>대만</td> <td>7%</td> <td>캐나다</td> <td>13%</td> <td>기타</td> <td>15%</td> </tr> </table> <p>[3304.30.00]</p> <table border="1"> <tr> <td>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td> <td colspan="2">0%</td> </tr> <tr> <td>대만</td> <td>7%</td> <td>EU</td> <td>10.5%</td> <td>캐나다</td> <td>13%</td> <td>기타</td> <td>15%</td> </tr> </table> <p>[3304.99.00]</p> <table border="1"> <tr> <td>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td> <td colspan="2">0%</td> </tr> <tr> <td>대만</td> <td>7%</td> <td>EU</td> <td>11.5%</td> <td>캐나다</td> <td>13%</td> <td>기타</td> <td>15%</td> </tr> </table> <p>[3307.41.00]</p> <table border="1"> <tr> <td>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td> <td colspan="2">0%</td> </tr> <tr> <td>대만</td> <td>7%</td> <td>EU</td> <td>10.5%</td> <td>캐나다</td> <td>12%</td> <td>기타</td> <td>15%</td> </tr> </table> <p>[3307.49.00]</p> <table border="1"> <tr> <td>미국,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 파나마</td> <td colspan="2">0%</td> </tr> <tr> <td>EU</td> <td>6%</td> <td>대만·캐</td> <td>12%</td> <td>기타국</td> <td>15%</td> </tr> </table> <p>[3307.90.10]</p> <table border="1"> <tr> <td>미국, 칠레, 대만, 도미니카공, 파나마</td> <td colspan="2">0%</td> </tr> <tr> <td>콜·캐나다</td> <td>3%</td> <td>EU</td> <td>3.5%</td> <td>기타국</td> <td>15%</td> </tr> </table> <p>[3307.90.90]</p> <table border="1"> <tr> <td>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td> <td colspan="2">0%</td> </tr> <tr> <td>캐·콜</td> <td>9%</td> <td>EU</td> <td>10.5%</td> <td>대만</td> <td>12%</td> <td>기타</td> <td>15%</td> </tr> </table>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대만	7%	캐나다	13%	기타국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EU	6%	대만	7%	캐나다	13%	기타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대만	7%	EU	10.5%	캐나다	13%	기타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대만	7%	EU	11.5%	캐나다	13%	기타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대만	7%	EU	10.5%	캐나다	12%	기타	15%	미국,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 파나마	0%		EU	6%	대만·캐	12%	기타국	15%	미국, 칠레, 대만, 도미니카공, 파나마	0%		콜·캐나다	3%	EU	3.5%	기타국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캐·콜	9%	EU	10.5%	대만	12%	기타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대만	7%	캐나다	13%	기타국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EU	6%	대만	7%	캐나다	13%	기타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대만	7%	EU	10.5%	캐나다	13%	기타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대만	7%	EU	11.5%	캐나다	13%	기타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대만	7%	EU	10.5%	캐나다	12%	기타	15%																																																																															
미국,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 파나마	0%																																																																																					
EU	6%	대만·캐	12%	기타국	15%																																																																																	
미국, 칠레, 대만, 도미니카공, 파나마	0%																																																																																					
콜·캐나다	3%	EU	3.5%	기타국	15%																																																																																	
미국, 칠레, 도미니카공, 파나마	0%																																																																																					
캐·콜	9%	EU	10.5%	대만	12%	기타	1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온두라스양허표 종합

* 주 : 온두라스의 경우 타국가 관세율 미공개로 ITC MAP을 통해 확인('15년 기준으로 최근 FTA발효국 미반영)

□ 관련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유럽, 미국산 등 유명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나, 중저가 브랜드 취급 유통업체·수입상들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산 취급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 한국산 평판 및 개선방안
 - 한국산 브랜드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일부 소비층을 중심으로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음.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점차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함.
 - 한국산 제품은 스킨케어 및 기초화장품류 시장 내 경쟁력이 높은 편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대부분 화장품류의 경우 관세 인하가 점진적(10년 철폐)으로 진행되어, 한-중미 FTA에 따른 즉각적인 가격경쟁력 혜택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확산이 더 중요
- 업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FTA 발효 시기를 잘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되,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FARMACIA SIMAN	(TEL)+504-2241-1010 (Email)asistenecomprassp@sarsiman.com (URL)www.farmaciasiman.com	○ 약국편의점 형태의 유통망으로 중저가브랜드(NYX, NYC, LA COLOR등) 화장품 취급
BEAUTY FACE	(TEL)+504-8754-7199 (Email)n/a(미공개) (URL)www.beautyfacehn.com	○ 온·오프라인매장을 보유한 뷰티제품 유통업체 ○ MAYBELLINE, BEAUTY CREATIONS, KTB 등 취급
FEDCO	(TEL)+504-2550-5371 (Email)info@fedco.hn (URL)www.fedco.hn	○ 오프라인매장 4곳을 보유한 뷰티제품 유통업체 ○ REVLON, KISS, URBAN STUDIO 등 취급
ELF COSMETICOS	(TEL)+504-2550-1588 (Email)ventas@elfcosmeticos.hn (URL)elfcosmeticos.hn	○ 오프라인매장, 온라인몰 운영 ○ 각종 중저가브랜드 취급

*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4

니카라과

가. 자동차부품(배터리, 타이어 포함)(HS 4011, 4012, 8507.10, 8708)

□ 품목 선정 사유

- 중남미 최빈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요 지속
 - * '17년 니카라과 경제성장률은 4.9%로 중남미 평균 성장률의 약 2배
- 한-중미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개선 시 경쟁국 대비 시장선점 효과 가능성이 큰 시장
 - 현재 니카라과 내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 비중은 약 7위

□ 시장현황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차량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
 - '15년 기준 차량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니카라과 관세청)
- 니카라과 내 제조 및 생산이 전무하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멕시코, 일본산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수입동향

-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수입액은 중국(27.6%), 멕시코(12.9%), 미국(11.3%), 일본(8.8%), 코스타리카(7.04%), 한국(7.01%) 순

< 니카라과 자동차부품 수입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연번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24.4	26.0	31.8	32.4	29.4
2	멕시코	10.4	11.8	13.1	13.1	13.7
3	미국	13.2	13.5	34.4	11.4	12.0
4	일본	9.2	8.0	8.6	8.3	9.4
5	코스타리카	7.0	8.4	7.9	8.3	7.5
6	한국	7.7	7.0	7.1	6.7	7.4
	전체	98.6	100.6	112.2	109.8	106.3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S Code 4011, 4012, 8507.10, 8708 합산 기준)

- 타이어(HS 4011)의 경우 중국(41.9%)과 코스타리카(14.28%)산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중고·재생타이어(HS 4012)는 미국(34.1%), 한국(23.4%)산의 비중이 높음.
- 배터리(HS 8507.10)는 멕시코(64.1%)산이 시장을 독식중이며, 뒤이어 한국(11.9%), 중국(9.8%), 터키(6.3%) 순
- 자동차부품(HS 8708)은 미국(21.6%), 일본(19.1%), 중국(17.0%)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한국의 수출동향

- 한국의 對니카라과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17년 수출은 전년 대비 7.7% 증가
 - 타이어(HS 4011) 및 중고타이어(HS 4012)는 '13년을 기점으로 수출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
 - 반면 배터리(HS 8507.10)의 경우 최근 5년간 한국산 제품 수출 연평균 성장률이 23.1%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對니카라과 자동차부품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타이어(HS 4011)	2,756	1,847	1,879	1,714	1,458
중고·재생타이어(HS 4012)	1,369	1,336	823	674	616
배터리(HS 8507.10)	1,004	1,235	1,578	2,310	2,837
자동차부품(HS 8708)	2,575	2,671	2,815	3,253	3,649
전체	7,704	7,089	7,095	7,951	8,560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 타이어(HS 4011.10/4011.2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니카라과	한국	4011.10.00 4011.20.90 4011.20.10	10% 5%	4011.10.00 4011.20.10 4011.20.90	5년 철폐 10년 철폐
	경쟁국	[4011.10.00.00.00/10.00.00.10/10.00.00.9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대만, 쿠바, EU, 멕시코, 파나마 기타국		0% 10%	
		[4011.20.10.00.10/20.10.00.90] 코스타리카, 도·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대만, 쿠바, EU, 멕시코, 파나마 기타국		0% 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니카라과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중고·재생타이어(Hs 4012.11/4012.12/4012.2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니카라과	한국	4012.11.00 4012.12.00 4012.20.00	15%	4012.20.00 4012.20.00 4012.11.00 4012.12.00	7년 철폐 10년 철폐
	경쟁국	[4012.11.00/20.0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대만, 쿠바, EU, 멕시코, 파나마 기타국		0% 15%	
		[4012.12.0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대만, 쿠바, EU, 멕시코, 파나마 EU		0% 7.5% 기타국 1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니카라과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자동차배터리(HS 8507.1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니카라과	한국	8507.10.00	15%	8507.10.00	즉시 철폐
	경쟁국	[8507.10.0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멕시코, 파나마			
대만		5%	칠레	6%	
	EU, 쿠바	7.5%	기타국	1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니카라과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자동차부품(HS 8708)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니카라과	한국	8708.80.11	1%	8708.80.20/92.20	10년 철폐		
		기타 하위품목	10%	기타 하위품목	즉시 철폐		
	경쟁국	[8708.10.00/40.10/40.20/50.10/50.20/50.90/70.00/80.11/80.19/80.20/80.90/91.20/92.10/92.20/93.00/94.10/94.20/95.0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대만, 쿠바, EU, 멕시코				0%	
		파나마	1%	기타국	5%		
		[8708.21.00/30.1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대만, 쿠바, 멕시코				0%	
		파나마	2%	EU	5%	기타국	5%
		[8708.29.10/29.9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쿠바, EU, 멕시코				0%	
대만	3.33%	기타국	10%				

		[8708.91.1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쿠바, EU, 멕시코, 대만, 파나마			0%
		기타국			5%
		[8708.99]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쿠바, 멕시코, EU			0%
		파나마	1%	대만	1.6%
		기타국			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니카라과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필터류와 중고타이어 등 애프터마켓 부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국산 평판 및 개선방안
 - 한국산 차량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다른 국가의 부품이 많이 납품되고 있는 관계로 일반적인 인식 개선과 이미지 제고가 필요함.
- 한-중미 FTA로 인한 기대
 - 한-중미 FTA를 계기로 중국, 태국 등 타 아시아 국가 부품과 비교하여 품질 및 A/S 측면 개선이 기대됨.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니카라과의 경우 파나마·코스타리카 등 중미 타국과 비교하여 아직 성장 단계가 낮은 시장임. 더불어 정치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니카라과 시장 특성을 사전에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파나마 내 물류기지 등을 이용한 소량다품종 납품 및 콜론자유무역지대에서의 재수출 등 중미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진출 전략 수립 필요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Casa Cross	(TEL)+505-2268-4693,8882-7451 (Email)epadilla@casacross.com.ni (URL)casacross.com.ni	○ 한국 부품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선호하며 한국산 자동차 AS 부품 수입 및 유통 중 ○ MANDO, ONNURI, KYB, NPR, ARCO, UNIBrake 등 취급
Importaciones JM	(TEL)+505-2249-2508,2249-9074 (Email)ventas4@importacionesjm.net (URL)www.importacionesjm.net	○ 트럭 등 대형차 AS 부품 취급 ○ VELVAC, GABRIEL, TRISEAL, LINIMIL 등 취급
ECASA	(TEL)+505-2252-2719 (Email)chernandez@ecasa.com.ni (URL)ecasa.com.ni	○ 주로 미국산 버스, 트럭 AS 부품 취급, 한국산 부품 취급 시작 단계 ○ Cummins, Carterpillar, Dorsey, Rockwell, Ford, Isuzu 등 취급
REPSA	(TEL)+505-2268-3700 (Email)atencionalcliente@repsaautocentro.com, repsa@ibw.com.ni (URL)www.repsaautocentro.com	○ 자동차부품, 타이어, 배터리 등 취급 ○ GOODYEAR, MAXXIS 등 취급
BATNICA	(TEL)+505-2252-8174 (Email)kgomez@batnica.com (URL)www.batnica.com	○ 주로 일본산 자동차 배터리 수입 및 유통 ○ YOKOHAMA, YUASA, DURO 등

*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나. 화장품(HS 3303, 3304, 330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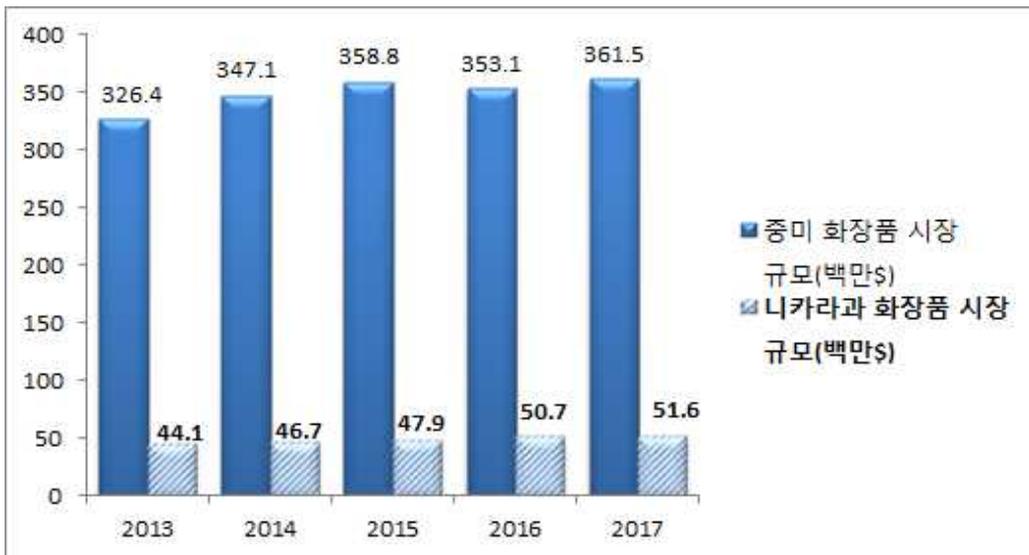
□ 품목 선정 사유

- 꾸준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상류층 중심의 미용·뷰티제품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이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증대
 - * '17년 니카라과 경제성장률은 4.9%로 중남미 평균 성장률 약 2배에 달하며, '10-'17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2%로 안정적 성장세 유지
- 기존 미국·유럽산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중남미 전체적으로 K-뷰티에 주목하여 수입시장을 다변화하는 추세

□ 시장현황

- 니카라과 화장품 및 개인위생(personal hygiene) 관련 용품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약 51백만 달러 규모로 중미 전체의 약 14% 차지

< 니카라과 화장품 시장 규모 >



* 자료원 : 니카라과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Nicaragua)

- 니카라과는 전통적으로 미국·유럽산 브랜드가 장악한 시장이나, 최근 마스크팩 등 한국산 중저가 브랜드가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

- 색조·메이크업 제품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기초화장품 등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 스킨케어 제품의 경우 아시아산에 대한 품질 및 기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K-뷰티 및 한류 등을 통해 한국산 제품 인지도도 제고 가능성 다대

□ 수입동향

- 니카라과는 전통적으로 미국산과 제품과 더불어 주변 멕시코,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인근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멕시코, 미국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70%
- 최근 중국산 저가제품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니카라과의 화장품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연번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멕시코	28,334	29,718	30,184	32,157	31,506
2	미국	3,704	4,016	4,706	4,419	4,953
3	과테말라	2,198	3,436	3,392	3,338	2,714
4	프랑스	2,526	1,741	1,844	1,390	1,851
5	스페인	1,156	1,165	1,190	1,552	1,420
28	한국	14	14	9	37	26
	전체	44,052	46,771	47,974	50,751	51,640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S Code 3303, 3304, 3307.90 합산 기준)

□ 한국의 수출동향

- 한국 화장품의 對니카라과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한국의 對니카라과 화장품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화장품	14	14	9	37	2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S 3303, 3304, 3307.90 합산 기준)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니카라과	한국	3303.00.00/3304.10.00/20.00/30.00/91.00/99.00/3307.90.90	15%	3303.00.00/3304.10.00/20.00/30.00/91.00/99.00/3307.90.10/90.90	10년 철폐	
		3307.90.10	5%			
	경쟁국	[3303.00.00/3304.10.00/20.00.00/91.00.00.10/91.00.9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쿠바, EU, 멕시코, 대만			0%	
		기타국			15%	
		[3004.30.0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쿠바, 멕시코, 대만			0%	
		EU	7.5%	기타국	15%	
		[3304.99.00.00.90]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칠레, 쿠바, 멕시코, 대만			0%	
EU	9.2%	기타국	1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니카라과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니카라과의 경우 빈부격차가 심해 아직 중고가 브랜드의 취급이 저조함. 저가 브랜드와 더불어 비누, 바디워시, 샴푸 등의 기본적인 세정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

○ 한국산 평판 및 개선방안

- 한국 제품은 아직 당사가 취급하는 마스크팩을 제외하고는 진출하지 않음. 니카라과는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상황으로, 상류층을 겨냥한 고가시장과 일반적인 저가시장으로 양분하여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음.

○ 한-중미 FTA로 인한 기대

- 아직까지 니카라과 현지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중미 FTA의 관세 인하 효과를 활용하기에 한국 제품의 진출은 초기 단계임.
- 중남미 내 K-뷰티 붐과 한류를 연계한 홍보 전략이 동반될 경우 승산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우리기업 담당자 인터뷰 (제품 : 마스크팩)

○ 진출 성공 요인

- 저렴한 가격과 동시에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임.
- 현지 유통 슈퍼 체인과 협력하여 판매 진행

○ 진출 애로사항

- 통관절차는 비교적 까다롭지 않으나 현지 화장품 관세 및 부가세가 높아 가격을 맞추는 데 애로사항이 있음.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니카라과는 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서도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로 고가시장과 저가시장을 양분하여 접근할 필요

- * 상류층 중심의 고가시장의 경우 미국·유럽산과 견줄 수 있는 고급화된 이미지의 고품질제품, 저가시장의 경우 일반 슈퍼체인 대상으로 입점 가능한 세안제나 저렴한 수준의 색조제품 등 기본제품 위주 공략 필요

○ 개별국가보다 중남미 통합시장 관점에서 접근하여, 중남미 국가 대형 유통체인에 입점된 사례 등 인근 국가 진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진출 방안 마련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SIMAN	(TEL)+505-2271-9365 (Email)contacto@siman.com (URL)www.siman.com/nicaragua/	○엘살바도르 자본의 백화점 유통망으로 니카라과 대형백화점 Galeria Santo Domingo, Metrocentro 상점 보유 ○Loreal, CoverGirl, Maybelline 등
IVETTE	(TEL)+505-2278-8089 (Email)info@variedadesivette.com (URL)variedadesivette.online.com.ni/default.aspx	○뷰티제품 유통 전문업체 ○니카라과 내 상점 3개 보유 ○Andrea, Bodydrench, Everystrand, Jordana 등 중저가브랜드 취급
Supermercados La Colonia	(TEL)+505-2274-4505 (Email)info@lacolonia.com.ni (URL)www.lacolonia.com.ni	○니카라과 내 대형 슈퍼체인 ○한국 마스크팩 바네도 취급, 미국 뷰티 브랜드 취급

*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5

파나마

가. 자동차부품(배터리, 타이어 포함)(HS 4011, 4012, 8507.10, 8708)

□ 품목 선정 사유

-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를 통해 기존 20~30%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타이어의 경우 한국산이 약 2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부품 대비 10-15%의 비교적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한-중미 FTA 발효 시 관세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중산층 증가 및 대중교통 미발달에 따른 신차·중고차 판매의 꾸준한 증가로 관련 부품 시장 호조세 유지
 - * '16년 기준 파나마 내 신차 판매 수는 67천대 기록
 - * 현지 특성 상 외장 부품의 교체 및 수리가 잦아 관련 부품 애프터마켓 수요 꾸준

□ 시장현황

-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자동차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수요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상황
- 파나마 내 자동차부품 제조 및 생산은 전무하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 수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부품 수요도 동반 상승
 - *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약 34%(현대자동차 약 18%, 기아자동차 16%)로 일본산(도요타 23% 등 전체 45% 가량 차지)에 이어 2위를 점하고 있음.
- 세부품목으로는 필터, 에어컨부품, 브레이크파트, 배터리, 엔진실, 스티어링파트, 타이어 등 마모도가 높은 부품의 수요가 꾸준히 존재

□ 수입동향

- '17년 기준, 파나마의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최대 수입대상국은 중국(21.6%). 중계무역지대인 콜론자유무역지대(11.0%)를 제외하면 미국(16.2%), 한국(11.0%), 일본(8.1%), 멕시코(6.3%) 등이 뒤를 이음.

< 파나마의 자동차부품 수입동향 >

(단위: 백만 달러)

연번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9월
1	중국	36.9	37.2	40.7	38.8	32.8
2	미국	36.5	38.2	36.6	33.2	24.7
3	한국	17.8	18.7	18.8	21.2	16.7
4	콜론자유무역지대	23.4	28.1	25.5	21.3	15.3
5	일본	17.9	16.0	16.5	17.4	12.4
6	멕시코	10.9	11.5	10.7	11.5	9.6
	전체	196.9	196.9	197.4	191.2	152.2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HS 4011, 4012, 8507.10, 8708 합산 기준)

- 타이어(HS 4011)의 경우, 중국(38.3%)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며 수입대상국 중 1위를 차지. 중고·재생타이어(HS 4012) 수입국 순위는 미국(15.9%), 네덜란드(12.5%), 일본(9.9%), 독일(8.8%), 프랑스(7.6%) 등 순으로 국별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음.
- 배터리(HS 8507.10)는 한국(37.7%), 멕시코(22.9%), 미국(18.3%)산이 시장을 독식
- 자동차부품(HS 8708)은 미국(25.2%), 일본(12%), 중국(10.9%) 제품의 비중이 약 50%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

□ 한국의 수출동향

- 최근 5년간 한국의 자동차부품(타이어, 배터리 포함) 수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

< 한국의 對파나마 자동차부품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9월
타이어(HS 4011)	9,881	10,226	8,951	6,903	3,321
중고·재생타이어(HS 4012)	497	273	86	109	35
배터리(HS 8507.10)	3,018	2,880	3,534	4,799	6,608
자동차부품(HS 8708)	4,423	5,327	6,256	9,415	6,701
전체	17,819	18,706	18,827	21,226	16,665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타이어(HS 4011.10)의 경우 중국에 이어 한국이 최근 7년간 수입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 '09년부터 파나마 타이어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으며, '16년 중국산은 전체 수입시장에서 39% 차지
- 배터리(HS 8507.10)의 경우 '15년부터 한국이 기존 수입국 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17년 기준 수입국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 자동차부품(HS 8708)의 경우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 타이어(HS 4011.10/4011.20)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파나마	한국	4011.10.00	10%	4011.10.00	10년 철폐
		4011.20.00		4011.20.00	
	경쟁국	[4011.10.00/20.00]			
		파나마	0%	볼리비아, 파나마	6.6%
에콰도르		7.2%	칠레, 콜롬비아, 쿠바	8%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8.8%	기타국	10%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파나마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중고·재생타이어(HS 4012.11/4012.12)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파나마	한국	4012.11.00	15%	4012.12.00	10년 철폐
		4012.12.00		4012.11.00	
	경쟁국	[4012.11.00/12.00]			
		볼리비아	9.9%	에콰도르	10.8%
칠레, 콜롬비아, 쿠바		12%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13.2%	
	기타국		15%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파나마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자동차부품(HS 8708)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파나마	한국	8708.29.10/30.10	0%	8708.10.00/29.10/29.90/30.10/30.90/40.10/50.10/50.90/70.10/70.90/80.10/91.20/93.10/93.90/94.10/94.90/99.10/99.90	즉시 철폐		
		/40.10/50.10/70.10/80.10/91.20/93.10/94.10/99.10					
		8708.91.90/93.32		15%		8708.80.90/92.10/92.20	5년 철폐
		/93.33/93.34		5%		8708.91.90/93.33/93.34/93.39/95.00	7년 철폐
		기타	5%	8708.82.10/40.20/91.10/93.20/93.31/93.32	10년 철폐		
	경쟁국	[8708.10.00/21.00/29.90/30.90/40.90/50.90/70.90/80.90/92.00/93.20/93.31/93.39/93.90/94.20/95.00/99.90]					
		볼리비아	3.3%	에콰도르	3.6%		
		칠레, 콜롬비아, 쿠바	4%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4.4%		
		기타국			5%		

[8708.91.10]			
볼리비아	1.98%	에콰도르	2.16%
칠레, 콜롬비아, 쿠바	2.40%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2.64%
기타국			3%
[8708.91.90/93.32/93.33/93.34]			
볼리비아	9.9%	에콰도르	10.8%
칠레, 콜롬비아, 쿠바	12.0%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13.2%
기타국			15%
[8708.29.10/30.10/40.10/50.10/70.10/80.10/91.20/93.10/ 94.10/99.10]			
모든 국가			0%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파나마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한국산 자동차의 애프터마켓용 부품(필터, 베어링, 피스톤 등)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파나마를 비롯한 중미시장의 자동차부품 시장은 애프터마켓의 수요가 항상 존재
- 한국산 평판 및 개선방안
 - 현지 한국산 차량 점유율은 다양한 차종과 가격대로 약 35% 이상의 점유율 유지
 - 다만 특정 정품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아 납기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동 현상이 지속될 시 납기조건과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OEM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한-중미 FTA로 인한 기대
 -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 후 즉시 판매가 급증하진 않더라도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로 장기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 예상

□ 우리기업 담당자 인터뷰 (제품 : 타이어)

○ 진출 성공 요인

- 파나마 지사 설립 이후 약 40년간 에콰도르 등 인근 중미국까지 관할하며 파나마를 거점으로 시장범위를 확장
- 최근 파나마 내 콜론자유무역지대 물류기지를 활용하여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향발 재수출 전략을 추진 중. '17년을 기점으로 중미 경제가 회복세에 있어 파나마의 물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진출 애로사항

- 진출 초기 느린 행정업무 처리로 계획보다 수개월 이상 진출이 지연됨.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국산 타이어와의 가격 경쟁임.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북미-중남미 및 태평양-대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나마의 이점을 살려 물류거점으로 활용. 더불어 제품의 납품기한 단축, 인근국 소량 오더 흡수 등 주변국 연계 진출을 위한 다양한 파생전략도 모색
- 타이어의 경우, 바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를 홍보하고, 중고가 수입품 타이어 취급 바이어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 등 브랜드 인지도 확산 전략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및 원산지증명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FTA 활용 제고
 - * 자동차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기준으로 도입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G&G PARTS	(TEL)+507-222-8014 (Email)gerencia@gygpartes.com	○ 한국산 자동차부품 꾸준히 수입 ○ MOBIS, VALEO, CTR 취급
Repuestos Comerciales	(TEL)+507-224-8790(ext.107) (Email)repcom@cwpanama.net	○ 자동차 AS 부품 전문 유통업체 ○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현대 기아 등 일본·한국산 부품 취급
Japan International Parts (REINSA)	(TEL)+507-229-3112 (Email)risaza@cableonda.net, hernan@jipzl.com (URL)www.reinsapanama.com	○ 한국서진 오토모티브 제품 독점 공급 ○ 일본차량 부품을 주로 취급하였으나, 한국산 자동차부품 취급 비중을 늘리고 있음
La Casa De Las Baterias	(TEL)+507-226-0721 (Email)compras.logistica@casabat.com (URL)casabat.com/panama	○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세방전지) 독점 공급 중 ○ 자동차용 배터리 외 UPS, Solar System, DC System 취급
Rastro Petiso Alessandria	(TEL)+507-221-7450 (Email)Sayre.jg@hotmail.com, leoalessandria@gmail.com (URL)rastronmpetisoalessandria.com	○ 파나마에서 50년 이상 자동차부품을 공급 중인 업체 ○ 중고부품을 주로 취급하며, 일본산이 80% 이상 차지. 한국산 비중 점차 증가하는 상황

* 자료원 : 무역관 자체조사

나. 음료(HS 2202.99.00)

* '16년 이전 HS 2202.90.90 → '17년 이후 HS 2202.99.00로 변경

□ 품목 선정 사유

- 경제성장과 중산층 증가에 따른 식음료 시장 발달. 더불어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음료 위주의 수요 확대 전망
- 가공식품 산업 발전수준이 낮아 음료제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음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전망

□ 시장현황

- 파나마는 미국산 음료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나, 최근 알로에·코코넛 등 과일 및 건강음료 위주로 수입시장이 다변화되는 추세
 - 대형 유통체인을 중심으로 알로에음료와 다양한 첨가물을 가미한 상품들이 입점에 성공하고 있으며, 기존 탄산음료 시장을 대체하고 있음.

< 파나마 인기상품 >

제품 사진	제품명/브랜드	인기 요인
	브랜드: Chin Chin 품명: Aloe Vera Juice Drink	대만산 알로에음료로 타 알로에음료 보다 가격이 저렴함
	브랜드: Estrella Azul 품명: Jugo de Naranja	파나마 국산브랜드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사이즈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음
	브랜드: Tropicana Products, Inc. 품명: Tropicana	미국 브랜드로 대부분 소매유통업체에 유통되고 있는 오렌지주스

< 파나마 내 우리기업 인기상품 >

제품 사진	제품명/브랜드	인기 요인
	브랜드: OKF 품명: OKF Aloe Vera King	현지 알로에음료 주요 브랜드로 알로에의 효능을 그대로 살렸으며, 다양한 맛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 제공
	브랜드: Fremo 품명: Aloe Vera Drink	타 음료 대비 같은 가격에 용량이 많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음
	브랜드: Lotte 품명: Day-c Agua con Limon/Toronja	저렴한 가격에 비타민C를 함유했다는 건강상품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비타민 워터보다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 보유

□ 수입동향

- 파나마 음료 수입시장은 기존 미국산 및 타 중남미 국가산 제품 수입 이외 아시아산 등 수입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 최근 한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 파나마의 음료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연번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9월
1	엘살바도르	17,567	17,584	20,951	18,799	13,447
2	과테말라	4,904	6,206	6,561	8,346	7,567
3	미국	6,317	8,861	9,299	8,780	5,889
4	코스타리카	12,054	6,969	1,942	1,066	1,047
5	대만	1,013	1,756	1,724	1,819	1,036
8	한국	373	591	517	386	337
	전체	44,002	44,184	42,838	43,178	31,871

* 자료원 : GTA (HS Code 220299 기준 ('16년 이전 2202.90.90 → '17년 이후 2202.99.00로 변경)

□ 한국의 수출동향

- 한국의 對파나마 과일음료 수출은 '14년 이후 감소를 보였으나, 최근 알로에음료 등 과일음료 진출기업 증가로 현지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對파나마 과일음료 수출 규모 >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9월
과일음료	373	591	517	386	337

* 주 : HS Code 220299 기준 ('16년 이전 2202.90.90 → '17년 이후 2202.99.00로 변경)

□ 한국 및 경쟁국 관세현황

국가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파나마	한국	2202.90.90	10%	2202.90.90	16년 철폐
		2202.90.90AA (알로에음료로 한정)	10%	2202.90.90 AA	즉시철폐
	경쟁국	[2202.90.90] 모든 국가			10%

* 자료원 : 한-중미FTA 협정문 부속서2-나, 파나마 양허표, ITC Market Access Map

□ 바이어 인터뷰

- 향후 수요 전망
 - 한-중미 FTA가 제품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수입되는 제품 이외 다양한 맛이나 현지에 도입되지 않은 신개념 음료를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
 - 최근에는 알로에·코코넛 음료나 비타민C 첨가 등 건강·영양 중심의 음료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음.
- 한국산 평판 및 개선방안
 - 파나마에서 이미 한국산 알로에음료가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동 제품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제품 자체와 생산국을 연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한-중미 FTA로 인한 기대

- 알로에음료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을 발판으로 신제품 런칭 등 더 다양한 제품 라인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중남미 주변국으로 수출 확장에 성공한 수출업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중남미 진출을 넓혀갈 계획

□ 우리기업 담당자 인터뷰 (제품 : 알로에음료)

○ 진출 성공 요인

- 초기 수출 품목은 알로에음료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음료 연구를 통해 非알로에 제품군(코코넛, 티, 스무디, 커피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립함.
-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포장을 개발하여 다양한 해외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중

○ 한-중미 FTA로 인한 기대

- 알로에음료가 이미 중남미 시장에 많이 진출해있는 상황이나,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중국, 대만 등 아시아 대비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우리기업 FTA 활용 전략

○ 시장 진출을 위한 등록 절차 숙지

- 파나마의 경우 식품류는 보건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야하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뒤 진출할 필요가 있음.

- 신제품 개발 필요
 - 중국·대만산 알로에음료가 낮은 가격에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제품 종류 다양화 노력과 더불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 홍보활동이 필요함.
- 파나마 국제박람회(EXPOCOMER) 활용
 - 파나마 최대 종합박람회로 한국, 대만 등 알로에음료 업체의 참가가 활발함. 중남미 식음료분야 바이어가 다수 참가하는 만큼 주변국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주 소비자인 청년층을 공략
 - 청량음료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이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파나마는 중미 내 고소득국가로 유기농·건강 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SNS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 마케팅 모색
- 가성비가 중요한 시장으로 건강한 제품 판매 방안 고려
 - 가성비에 대한 인식이 강해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가격만 저렴한 제품 보다 건강 음료를 적정 가격에 파는 전략을 구사

□ 주요 수입·유통업체

업체명	연락처	특징
Rich & Noble	(TEL)+507-387-2500 (Email)info@richandnoble.com (URL)www.richandnoble.com, www.fremoaloe.com	○ 유통브랜드: Fremo ○ 파나마 한인딜러로 한국음료 및 주류 유통
Si, es Natural S.A	(TEL)+507-278-0835 (Email)salud@siesnat.com (URL)www.siesnat.com	○ 유통브랜드: OKF ○ 한국 OKF 제품 독점 유통 중
Casa Juan Siu	(TEL)+507-212-1878 (Email)casa.juan.siu@gmail.com (URL)www.facebook.com/CasaJuanSiu	○ 유통브랜드: ChinChin ○ 태국대만 제품 등 저가제품 유통

*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V

결론 및 시사점

□ 중미는 떠오르는 틈새시장으로 향후 성장가능성 다대

- 중미는 개별국가 시장규모로는 작지만 5개국을 합치면 중남미 8번째 경제규모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중남미 지역 전체를 웃돌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 경제규모('16년):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중미 순
 - * 경제 성장률('18년 예측치, %) : 코(3.6), 엘(1.8), 온(3.3), 니(4.2), 파(5.4), 중남미 전체(2.1)
- 관세동맹 확산으로 향후 역내간 재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며, 이러한 지역통합 기류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도 중미시장 단일화가 진행 중
 - *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17.6월 발효)을 통해 한-중미 FTA 미참여국인 과테말라 우회 수출로 활용 가능
 - * POMA 가문(엘) 중미 전역 쇼핑몰 및 자동차딜러십 보유
- 인구의 약 47%가 만 24세 이하의 소비 성향이 강한 젊은층으로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음.

□ 중미 소비자의 소비성향 변화를 파악하여 중미시장 공략

-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로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중산층의 소득 증가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소득 증대에 따라 미용, 건강, 여가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화장품, 건강음료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소비 성향도 기존 가격 위주에서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다양한 사업기회 참여

- 중미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프로젝트 수요 지속 존재
 - * 한-중미 FTA를 통해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우리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

< 중미 국가별 유망 프로젝트 현황 >

국가	프로젝트 현황
파나마	· 메트로 3호선 사업 (20억불) · 제4송전선 건설 (5억불)
코스타리카	· 산호세 경전철 사업 (16억불) · 산호세 OROTINA 신공항 사업 (20억불)
니카라과	· ELCARMEN 수력발전소 (3.3억불) · TUMARIN 수력발전소 (3.9억불)
엘살바도르	· AMSS 도심도로망 건설 (1.2억불) · ACAJUTLA 가스발전소 (9억불)
온두라스	· GUACERIQUE 수력댐 건설 (3.5억불) · AGUAFRIA 태양광발전소 (1.5억불)

-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파나마 정부 주도의 의약품 구매 관련 다수의 입찰 기회 존재.
 - * 한-중미 FTA를 통한 의약품 관세 인하 효과를 홍보하고, 한국산 제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회로 활용

□ 중미시장 진출 전략 방안

- 개별국가가 아닌 중미 통합시장 관점으로 접근 필요. 중미 다국적기업 (Multilatina) 등 중미 전역에 걸쳐 영업망을 확보한 기업을 활용하고, 소량 오더라도 스페인어 매뉴얼 및 라벨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우선 고려
 - * Cencosud, Falabella 등 Multilatina 및 Mercado Libre, Oferta Simple, Mercader, Panafoto, Multimax 등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 중미 각국의 내수시장 규모는 작지만, 시장 통합 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만큼 파나마 등지에 물류거점을 구축하여 납기일을 단축하고 소량 오더에 대응
 - * 중미 바이어가 제기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여타국에 비해 긴 납기일이며, 한국 제품의 다품종 소량거래를 희망
- 중미 한류 붐을 활용해 한국산 소비재 마케팅에 접목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사용기 확산 등 다양한 수단 활용

작 성 자

- 과테말라 무역관 이 훈
- 파나마 무역관 김현진
- 중남미 지역본부 이유진
- 통상지원팀 이주미

Global Market Report 18-018

한-중미 FTA 분야별 활용방안

-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통상지원팀
(02-3460-7513)
I S B N | 979-11-6097-734-9(95320)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